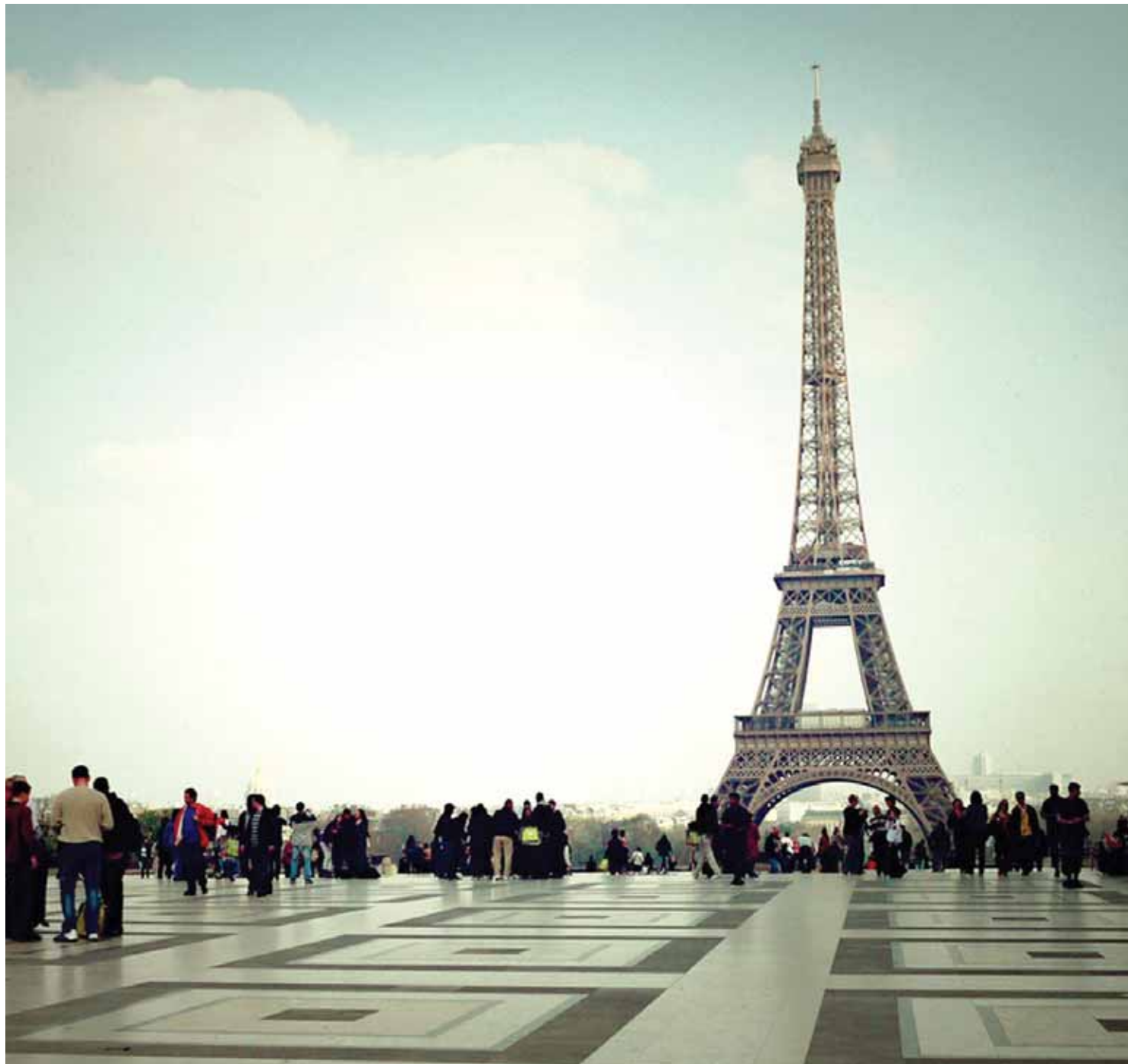


“새롭고 거대하게”...과시본능이 만든 파리의 상징들



사이오 궁 사이에 위치한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본 에펠탑.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박람회 특수의 정점이었던 1900년 박람회를 앞두고 건설된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뒤쪽의 건물은 같은 시기에 지어진 그랑 팔레.



오르세 미술관 앞 마당에 설치된 여신상. 1878년 박람회 때 트로카데로 광장에 설치됐던 것으로 나중에 남미와 오세아니아 여신이 추가돼 현재는 6개가 전시돼 있다.



에펠탑 꼭대기서 본 트로카데로 광장과 양쪽에 대칭으로 선 사이오 궁.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15)

파리와 박람회



모든 것이 풍요롭던 유럽의 벨 에포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최신 유행의 경연장이었던 박람회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런던에서 1851년 처음으로 국제 박람회가 열린 이래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박람회를 열어 기술력을 선보였다. 철도 시대를 예고한 증기기관차(1851년)가 등장한 것도, 축음기(1878년)가 등장한 것도, 상용 자동차(1885년)가 등장한 것도 박람회를 통해서였다.

포퓰은 산업혁명을 등에 업은 영국이 열었지만, 정작 박람회를 100% 또는 그 이상 활용한 것은 프랑스다. 19세기 후반 50년 동안 파리에서만 5번의 박람회가 열렸다. 파리 뿐 아니라 브장송(1860년), 메즈(1861년), 리옹(1872년·1894년) 등 프랑스 내 지방 도시에서도 이런저런 주제로

추는 야간 조명도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대형 화면에서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상영됐고, 유성영화도 등장했다. 센느 강 위의 가장 화려한 다리인 알렉상드르 3세 다리를 비롯해 앙발리드 다리, 알마 다리, 아이나 다리 등이 새롭게 지어졌다.

박람회의 주체가 행사 기간 동안 사용했던 대형 건물의 사후 용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박람회 이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살아남아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탑은 운이 좋은 경우다. 박람회 폐막과 함께 사라진 초대형 건물들도 없지 않지만 박람회에 맞춰 건설된 수많은 건물이나 시설들이 지금도 파리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행사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본 파리지역의 해안은 이제 막 여수 박람회를 마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물이나 다리 등 대형 건축물이 아닌 조각들도 파리 어디인가에 자리를 옮겨 시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박람회가 남긴 조그만 흔적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를 느껴보는 좋은 방법이다.

에펠탑은 파리에서 열린 4번째 박람회(1889년)에 건설됐다. 파리 시내와 가깝지만 밀집도가 높지 않아 에펠탑이 생기기 전부터 그 일대는 박람회 장소로 사용됐다. 3번째 박람회(1878년) 때 지금의 에펠탑 강 건너에 커다란 궁이 지어졌다. 지금은 광장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트로카데로 궁이다. 여기서 ‘궁’은 왕실의 거처가 아니라 ‘호화롭고 웅장하게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 트로카데로 궁은 박람회 기간 동안 파티 장소 등으로 사용된 뒤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1937년 박람회를 앞두고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현재의 사이오 궁이 들어선다. 사이오 궁은 1946년 첫 UN 본부 사용된 곳으로 유명하다. 대칭으로 자리잡은 사이오 궁 사이의 트로카데로 마당은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어서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트로카데로 궁이 사라지기 전의 향수를 오르세 미술관 앞 마당에서 느낄 수 있다. 1878년 박람회 당시 궁에 설치됐던 대형 조각품 4점이 오르세 미술관 개관을 맞아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여신상으로 알렉상드르 팔기에트 등 당대 최고 조각가들의 작품이다. 오르세 미술관 앞 마당에 있는 대형 동물 조각상도 1878년 박람회를 위해 제작돼 트로카데로 궁 앞에 전시됐었다. 코뿔소와 말, 코끼리, 황소 등 동물 연작이 박람회 때 선보였는데 이 중 코뿔소와 말, 코끼리는 오르세 미술관 앞에, 나머지 황소 상은 파리 남쪽 조르주 브라상스 공원 내에 전시돼 있다.

생 제르맹 데프레 상당 바로 옆에 위치한 펠릭스 데뤼엘 스퀘어 구석에는 1900년 박람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유럽 최대인 세브르 도자기 공장이 박람회를 맞아 설치한 파비용의 회랑형 외벽 장식은 그대로 옮겨놓았다. 사람 도자기로 제작된 이 조각품에서 18세기 중반부터 발전을 거듭한 프랑스 도자기 기술의 정교함과 당시 왕실이나 귀족의 화려한 취향을 엿볼 수 있다. 도자기도 실내 장식 뿐 아니라 견고함과 지속성이 필요한 건물 외양의 장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시 1900년 박람회에 전시된 뒤 펠릭스 데뤼엘 스퀘어에 잠시 옮겨졌다 다시 자리를 바꿔 라틴 구역의 씨피옹 스퀘어에 설치된 벽화 부조가 있다. ‘제빵사’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알렉상드르 사르판티에가 사람 벽돌에 유약을 발라 제작한 것이다. 조각가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에서 발굴된 고대 벽화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작품이 동네 공원에 불과한 씨피옹 스퀘어에 전시돼 있기는 좀 초라한 구석이 있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파리 산책의 즐거움 중 하나다.

1855년 첫 개최...지하철·유성영화 등 등장

만국박람회서 지은 에펠탑, 年 700만 방문

많은 건축물 도시 곳곳 옮겨 시민들에 ‘향수’

순천정원박람회·U대회 앞둔 지역에 ‘본보기’

국제박람회를 열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파리는 박람회를 열 때마다 길이 짙어질만한 대형 건물들을 선보여 참가국들의 기를 꺾었다. 1855년 파리의 첫 박람회에서부터 센느 강변에 길이가 1.2킬로미터에 달하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 기계 전시실의 전용면적은 2만 평방미터였다. 두 번째인 1867년에 건축된 기계 전시실은 너비 384미터에 길이 500미터인 전용면적 15만 평방미터 규모였고, 1878년에는 28만 평방미터로 더 커졌다.

멈추지 않는 과시 본능의 정점에 에펠탑이 있다. 1889년 만국박람회에 맞춰 지어진 에펠탑은 300미터 높이의 철탑이다. 난데 없이 솟은 에펠탑이 프랑스인의 정서와 예술 감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파상, 베를렌 등 유명 예술인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건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첫 해 관람객이 190만명에 달했고, 지금도 연간 7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간다. 1900년에는 파리에서 제2회 하계올림픽까지 개최됐다. 각각 3천만명과 5천만명에 다녀간 것으로 기록된 1889년과 1900년 두 번의 박람회는 국제사회에 파리가 왜 ‘19세기의 수도’인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런던에서 열린 1회 박람회 관람객이 6백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공이었다.

특히 1900년 박람회에는 지금도 각종 기획 전시로 파리 지역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랑 팔레와 뷔티 팔레가 지어졌고, 런던 등 다른 유럽 도시보다 늦긴 했지만 이 박람회를 계기로 파리 지하철이 개통했으며,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르세 역 등이 새롭게 선보였다. 이때부터 빛을 이용한 광장의 분수가 등장했고, 건물을 비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jihjeong@gmail.com



소파 식탁 대전

SPACE
홍스페이스 1899-0240

금일 입점 신상품 120 종류

www.hong79.com(홍친구닷컴)